

# 장백산천지

제 376 호

2020 년 4 월 14 일

화요일

## “진선인 (眞善忍)’은 아름답다.”

[ 명후이왕 ] 2020 년 2 월 28 일부터 3 월 1 일까지 호주 브리즈번 전시센터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건강박람회를 개최해 수십 개 참가업체와 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파룬따파 평화여행과 파룬따파 서적, ‘명후이 주보’와 정교하고 아름다운 일련의 사진 등 진상 자료는 파룬따파 부스에서 전시됐고, ‘진선인 (眞善忍)’의 아름답고 순정한 에너지는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파룬따파 부스는 3 일간의 박람회 기간 유난히 바빴고, 수천 명 방문객은 수련생들이 시연하는 완만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공법과 우아하고 조용한 연공 음악에 매료됐다. 그들은 잇달아 파룬따파 부스에 찾아와 진상을 알아보는 동시에 진상 자료를 받아 갔다.

### 시민이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에 끌려 바로 파룬궁 공법을 따라 배웠다.

킹가로이 (Kingaroy) 에서 온 미용사 샤나 (Shanae) 는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에 끌렸고, 현장에서 바로 다른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들에게 파룬궁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자료와 기타 정보를 받아 가며 파룬궁 수련생과 장기간 연락을 취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 다른 부스의 캐나다 안마사 스튜어트는 즉시 다섯 가지 공법을 배웠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이런 동작을 배울 때 매우 강한 에너지를 느꼈고, 예전에 파룬따파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젊은 여성은 당일 이미 사우스비치파크 연공장에서 다섯 가지 공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박람회에서 파룬따파 수련생들을 재차 만나 매우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은 연공을 더욱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튜어트는 또 한 권의 ‘파룬궁’ 서적을 구매해 고향인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빅토리아시에 돌아간 후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과

## 호주 최대 건강박람회에서 파룬궁 전파



위 : 박람회 기간에 수련생들은 줄곧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전파했다.

아래 : 캐나다 주류사회 인사들이 현장에서 파룬궁을 요해하고 배웠다.

연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그에게 한 송이 연꽃을 선물하며 중국 전통문화에서 연꽃은 평화와 고요함을 상징한다고 알려줬다. 그는 매우 기뻐했고, 파룬궁수련생과 포옹하며 감사를 전했다.

‘물병자리 타임스 음악제’ 주최자 코니 (Connie) 는 파룬궁 수련생들과 만남을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수년 전 그녀에게 한 송이 연꽃을 준 적이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한 송이 연꽃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 중국사람이 파룬궁 박 해 진상에 관심을 두다

서양 파룬궁 수련생 로리스는 부스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파룬따파가 그녀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또 중공의 20 여 년간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이야기했다.

그 중 몇 명은 중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진상을 알 기회를 얻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자신의 친척은 중국에 있는데, 중공 매체의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 늘 많은 시간을 들여 진상 자료를 검색하는데, 파룬궁이 중공의 박해를 당하는 진상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파룬궁 진상을 더욱 많이 알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당일 여러 차례 파룬따파 부스에 찾아와 진상에 대해 문의했다. ◇

#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네티즌 : 만약 날카로운 비평이 완전히 사라지면 차분한 비평마저 귀를 거슬리게 한다. 만약 차분한 비평마저 용납되지 않는다면 침묵은 마음이 음흉하여 본심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한다. 만약 침묵마저도 용납되지 않는다면 힘껏 찬양하지 않았다고 죄를 묻는다. 만약 단 한가지 목소리만 존재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 뿐이다.

[ 밍 후이왕 ] 중국공산당 (이하중공)은 전염병 상황을 7~8 주 동안 은폐하여 가장 좋은 방역시기를 놓쳤기에 전염병의 확산세는 거대한 재난을 조성했다. 3월에 들어와 병독이 전세계에 퍼졌다. 이때 중공은 오히려 “승리의 소식”을 잇달아 날아들게 했다. 중공의 지도방향에 익숙한 중국사람은 “해외 엄청난 전염병 상황”을 자원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루밤 사이에 선명한 대조를 가진 정보들이 날아들었다: 중국은 공제를 잘하여 짧은 시간내에 전염병을 전승했다; 해외는 너무 자유민주기에 전염병 공제가 어렵다; 중국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해외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중국을 초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 추세다;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중공의 수치에 대해 의심하며, 중공이 전염병상황을 은폐해 병독을 빠른 속도로 확산 시켰다고 제출하는데도

신화사는 오히려 <세계는 중국에 응당 감사 해야한다>라는 문장을 높은 곡조로 퍼뜨렸다.

이런 극의 대반전은 적지 않은 사람을 미혹시킨 것 같다. 다행히도 무한사람들이 생명의 대가로 바꾼 교훈은 그래도 일부분 사람을 일깨웠다: “이번 전염병에서 죽은 사람은 정부를 믿는 사람이다.”

## 호루라기를 분사함

<인물> 잡지에서 이러한 문장이 발표됐다. 무한시 중심병원 응급실 주임 아이펀 (艾芬)은 작년 12월 31일에 불명 바이러스 (병독) 검사보고서를 받았다. 그녀는 검사보고서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친 후 사진을 찍어 의대 동창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무한 의료팀에 널리 전파됐다. 아이펀은 병원 령도로부터 전문가인 그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동료들이 연이어 쓰러져

갔고, 무한사람들이 병을 치료하자고 해도 치료 할 곳이 없어 비참하게 사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아이펀은 비통해 하며 “오늘날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나는 그들이 비판해도 모두에게 알릴 걸 그랬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아침부터 웨이썬 (微信)에서 전파 됐지만 점심전에 관리인에 의해 삭제됐다. 그 후로부터 네티즌들은 각종 방식으로 이 문장을 이어서 전파 했다: 제목을 바꾼 자도 있고, 플랫폼을 바꿔서 올린 자도 있고, 그들은 삭제하면 또 올리고, 그 다음날까지 심지어 영문, 일어문, 점자판 등 여러 판으로 발표되었고 지금까지 뒤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 부동한 판본으로 이어져 전파되는 것은 이미 원문의 의도를 초과 하였고 중공이 정보 은폐와 공제에 대한 말없는 항의였다.



“가짜야! 가짜야! 모두 가짜야!” 3월 5일 중국 공산당 부총리 손춘란 (孫春蘭)은 무한시 청산구 개원공관 단지를 시찰했다. 지역사회 인원들을 봉사자로 속여 고기와 채소를 배달했다. 집에 갇혀 있던 주민들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앞다투어 외쳤다. “가짜야! 가짜야!” “모두 가짜야!” 주민들이 시나리오에 맞춰주지

않자 손 부총리와 시 지도자들은 쇼를 중도에 그만두고 그냥 허겁지겁 빠져나갔다.

이 간단하고 직설적인 성난 외침은 중국사람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실을 토로했다.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외침은 컷전을 때렸다. 이 뉴스가 인터넷에 오르자마자 네티즌의 찬사를 받았다.

기실 중공의 역사는 한편의 살육 역사이자 거짓 역사이기도 하다.

홍군의 장정은 가짜: 북상하여 항일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섬북 (陝北, 중국 섬서성 북부 지방)에는 일본 침략자가 없었다; ‘한밤중에 닭이 울다’는 가짜: 한밤중에 사방이 캄캄한데 일할 수도 없다; (3면에 계속)



(2 면의 계속) “3 년 자연재해”는 가짜 : 실제로 그 3 년은 날씨가 매우 좋았는데, 홍수도 가뭄도 발생하지 않았다. 완전한 “대약진”을 해 조성한 ‘인화 (人禍)’이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가짜다 : 중앙텔레비 분신자살 프로그램의 동영상에는 수평 앵글과 하이 앵글로 근접해서 클로즈업 촬영을 한 이외에 또 멀리 보이는 경치도 있었다. 이는 한 개 가짜 연극이다. 파룬궁 서적 <전법륜 (转法轮)>에는 “연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중공의 거짓말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무한사람들이 잘 말했다 : “가짜야! 가짜야! 모두 가짜야!”

최근 중공이 발표한 무한 폐렴 환자 통계는 국내 환자 수치를 가장 낮게 누르고, 이른바 국외수입 수치를 점점 많이 높여 거짓수치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해 전염병 상황의 죄행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3 가지 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 (1) 중국내 국민의 주의력을 돌린다. (2) 기회를 빌려 자신을 치켜세우고, 자신의 통치 방식과 전염병을 다스리는 능력 (이른바 제도적 우세도 포함) 을 과장하여 선전한다. (3) 책임을 떠넘기고, 무한 폐렴의 진원지를 미국에 뒤집어쓰워 반미 선전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실제상 현재 국내에서 무한 폐렴의 전파상황은

외국보다 더욱 엄중하다. 누구도 모두 중공이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냥 속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속일 뿐이다.

이 한차례 사고험 앞에서 세인들이 중공에 환상을 가지지 말고, 리성과 선량을 지키고, 중공이 중국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고, 중공의 손아귀에 들어가 생명의 대가까지 치르지 말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



## 고풍유유: ‘죄기조’가 효력이 없는가?



명나라 말기에는 지진, 굶주림, 전란이 빈번했고, 경성으로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이시기 경성에는 바로 유명한 도인이 있었다. 숭정제 (崇禎帝) 는 급히 도인에게 명해단을 세우고 제사를 올려 전염병의 액운을 없애게 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부적을 태우고 주문을 외웠지만, 전염병은 조금도 물러가지 않았다.

숭정 황제는 이미 두 차례나 죄기조 (罪己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조서) 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나타나는 재난에 직면해 또다시 3 번째 죄기조를 썼다. “천재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메뚜기와 가뭄이 빈번하나, 탐관오리는 수탈에 여념이 없고 터무니없는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쓸 차례가 되자 모두가 짐이 부덕한 탓이로다.”는 공허한

한마디 말만 썼다.

죄기조가 반포된 후, 실질적인 조치가 따라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남성의 적에 함락된 지역에 대해 5 년 동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는 일찍이 틸왕 (闖王) 리자성 (李自成) 이 통제하고 있어 돈과식량을 전혀 거두어 들일 수 없었다.

국고가 비니 설상가상이었다. 그때 동성 (桐城) 에는 장천 (蔣臣)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에 와서 지폐를 찍고, 국채를 발행하고, 은전을 회수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수도의 상인들이 조정에서 지폐를 찍어 은전을 대체한다는 말을 듣고는 잇달아 장사를 접고도 망갔다. 한 대신이 이런 방법이 부당하다며 간언을 했지만, 숭정제는 그 말을 듣고도 고집을 피우며 강행을 했고, 가혹한 형벌

과 법률을 앞세워 널리 보급하게 했다. 그러나 결국 지폐는 한 장도 발행되지 않았다.

하나 또 하나의 재난에 직면한 숭정제는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렸다. 명나라 때 가까운 신하를 처형한 사례는 4 차례에 불과한데, 그중 두 차례는 모두 숭정 시기에 발생한 데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재상이었고, 모두 20 여 명의 대신이 직접 살해되었다.

한 편으로는 하늘에 기도하고, 한 편으로는 백성을 수탈하고, 한 편으로는 죄기조를 쓰고, 한 편으로는 오히려 잘못을 끊임없이 대신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렇게 행동 하면서 어떻게 진정하게 참회하고 개선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하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

## 광동성과 복건성에서 대량의 경찰을 파견해 무한시 여자감옥에 지원하다

[ 명후이왕 ] 최근 광동성 여자감옥과 복건성 여자감옥에서 또 많은 경찰을 무한 여자감옥에 지원했는데 이는 지난 두주일내에 발생한 일이다. 보아하니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았다. 외부 추측에 따르면 이전에 파견된 경찰 대부분은 중공 병독(무한 폐렴)에 감염되었기에 어쩔수없이 더 많은 경찰을 파견해야 구멍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다.

현재 무한시 여자감옥으로 지원된 경찰들은 방호복을 입고, 보호안경을 착용했다. 중공은 그들이 감옥내 역병사실을 유출할까 두려워 그들의 핸드폰을 전부 압수했다.

금년 2월 21일, 국내 각 매체에서 무한시 여자감옥에서 230명이 확진돼 감옥장이 면직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무한의 매개 감옥, 구치소, 파출소는 이 한차례 20년이 넘는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중공의 박해 정책에 뒤따랐다.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도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을 여전히 감금하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

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다.

호북성 무한시 신주구역 파룬궁 수련생 채루편은 무한 여자감옥에 불법으로 3년 감금당했고 2월 21일이면 만기된다. 하지만 한달이 다가오는데도 집식구들은 채루편을 보지 못했고 상관 부문에서도 아무런 말도 없다. 무한시 신주구역 제1중학교는 호북성 중점중학교이자 실험성 고중이며, 역시 무한시 대외 개방 학교이다. 채루편은 구역1중의 고중 우수 교사이다.

호북성 사법청의 관할범위인 무한 여자감옥은 중공의 “모범감옥”이란 칭호를 수여 받았다. 감옥의 원정위 장춘증(蔣春曾)은 중공 610(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과 사법계통에 의해 파룬궁박해 전형으로 수립됐다. 그가 주도해 실시한 “3인 호상감독”제도는 즉: 먹고, 거주하고, 걷고, 자고, 심지어 화장실을 갈때도 반드시 3인이 동행하는 것이다. 엄격한 관리제도와 생산임무 증가는 여러 차례 일반범인의 자살 사건을 일으켰다. ◇

### 연변박해소식

연길시 파룬궁 수련생 정아문(鄭雅文)은 억울하게 4년 불법진영형 선고 받다

2019년 3월, 연길시 파룬궁 수련생 정아문은 신강에 있을 때 호텔에서 연길시와 화룡시 경찰에게 납치돼 연길에서 불법감금 당한 후 억울하게 4년 불법진영형을 선고 받았다. ◇



## 둘째 사촌 언니가 진심으로 대법이 종다를 읽어 무한 폐렴이 사라지다

[ 명후이왕 ] 2019년 말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중공 병독(무한 폐렴)이 퍼지면서 너무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나의 둘째 사촌 언니는 항정부에서 일하기에 평소 사당(邪党)의 독해를 비교적 많이 받았다. 가족 친인들이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여 몸과 마음에 이익을 얻었으나 그녀는 오히려 전혀 관심이 없었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파룬궁 진상을 말해도 믿지 않고 듣는 등 마는듯 했다.

2020년 1월 6일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서 30여 분 약국 종업원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후에 이 종업원은 무한 폐렴으로 확진) 귀가한 다음 날 열이 나고 헛기침을 하며 가슴이 답답

하고 전신에 통증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태가 4~5일 지속되고 매일 체온이 37.5도 미열이 있었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둘째 사촌은 몰래 병원에 달려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폐에 온통 흰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장이다. 전염병에 걸렸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모(파룬궁 수련생)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소리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도 좋은 일이 생기고 재앙을 없애 준다고 말하며 성심성의

껏 읽으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둘째 사촌 언니는 고모가 하라는 대로 성심껏 낭송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낭송한 그날 기침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 가슴이 답답하여 괴롭던 증상이 사라졌고, 사흘날 열이 내렸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둘째 사촌 언니가 기뻐하며 고모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를 읽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생사의 재난을 겪고 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대법에 감사했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眞善忍好)’를 믿게 되었다. ◇

